

익산시-익산시의회 의장단, 협력 다짐

올해 두 번째 간담회 개최... 지역 주요 현안 논의 등
정현을 시장 “지역발전 위해 시의회와 소통·협력”



익산시와 익산시의회가 올해 두 번째 간담회를 개최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를 더욱 굳건히 다졌다.

익산시는 지난 3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익산시의회 의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며 협력과 소통을 강화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2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안건을 공유하고, 추경예산 편성이 필요한 핵심 사업들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시는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한 '익산시 조직개편(안)'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원활한 추진에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동부권 육아 지원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와 생태계 복원의 선도 모델 제시 및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왕궁 에덴프로젝트 기본구상 용역비'에 대한 추경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익산 디지털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제3일반산업단지 폐기물 처리 시설 부지의 용도폐지 및 매각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경진 의장은 “시민의 목소리를 더욱 새겨들고 집행부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시청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을 시장은 “현안사업 추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서는 시의회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주요 사업을 사전에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유학생 정착 돕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익산시, 교육육발전특구 사업 추진... 12주간 한국어 교육·시티투어

익산시가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자 교육·체험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익산시는 지난 31일 원광보건대학교 보건의료 분야 외국인 유학생 23명을 대상으로 12주간의 한국어 교육을 시작했다.

한국어 교육은 주 2회(화·목), 회당 2시간씩 총 48시간 진행되며, 지역사회의 적응을 돕고자 생활밀착형 회화 중심의 과정으로 구성됐다.

교육에 앞서 지난 29일에는 익산 주요 명소를 탐방하는 시티투어가 운영됐다. 유학생들은 고스라, 이산한교도소(교도소 세트장), 미륵사지 등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장소를 방문하며 익산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유학생들의 익산 정주 의지를 높이고자 교육육발전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교육공

동체지원센터와 연계해 진행된다. 교육공동체지원센터는 지역 교육 혁신을 위해 익산시, 원광대학교, 익산교육지원청이 함께 설립한 협력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유학생 지원 프로그램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지역과 유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다지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교육공동체지원센터 등과 협력해 정주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해 2월 교육부 공모사업인 ‘교육육발전특구 1차 시범 선도지역’에 선정됐다. 교육과 정주, 인재 양성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목표로 익산교육지원청과 원광대학교를 비롯한 지역 기관과 함께 3년간 총사업비 229억 원을 투입해 26개 사업을 진행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소상공인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시행

은행 매칭 대출 250억 규모... 최대 5천만원까지 대출·이자 지원

군산시는 지난 28일 전북신용보증재단과 농협 등 6개 시중은행이 함께 추진하는 ‘2025년 군산시 소상공인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제도란,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을 완화하여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이번 군산시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을 위해 군산시는 10억, 농협 등 시중은행(농협, 전북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에서 융자 받을 수 있다. 업체당 금융기관 대출 한도는 최대 5,000만원이다.

또한 시는 대출 기간 3년 동안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이 1.7% 이상을 초과하면 이차보전으로 5%의 이자를 지원한다.

출연금의 약 12.5배인 250억 원 규모의 보증서를 발급해 소상공인의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사업접수는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대상은 군산시에서 3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신용평점 595점 이상(1~7등급)의 소상공인이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북신용보증재단 군산지점(☎063-452-0341)에 신청하면 보증서를 발급받아 관내 금융기관(농협, 전북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에서 융자 받을 수 있다.

또한 시는 대출 기간 3년 동안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이 1.7% 이상을 초과하면 이차보전으로 5%의 이자를 지원한다.

한편, 시는 2012년부터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사업을 14년째 이어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64억 상당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세명테크 방문... 기업 소통행정 강화

익산시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소통행정에 나섰다.

익산시는 강영석 부시장이 익산 제2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한 (주)세명테크 1공장을 방문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

움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논의하기 위한 현장 행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강 부시장은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내수 부진, 자금 부족 등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이상호 (주)세명테크 전무는 “익산시

가 기업의 어려움에 귀 기울여 준 덕분에 큰 힘이 된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상생 발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강영석 부시장은 “기업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가장 중요한 시장의 나침반”이라며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고, 지역산업의 버팀목인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희망저축계좌 2’

지원 대상자 모집

군산시는 취약계층의 자립·자활에 필요한 자산 형성을 위한 ‘희망저축계좌 2’ 대상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 2’는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계층이 저축을 할 경우, 정부가 일정 금액의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 대상자가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는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1년 차 10만원, 2년 차 20만원, 3년 차 30만원을 지원한다.

이렇게 3년이 지나면 본인 저축액 360만원과 적립된 근로소득 장려금 720만원을 합해 최대 1,080만원과 이자를 받게 된다. 단, 가입자는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군산시는 이 제도를 통해 사회 취약가구 경제적 홀로서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근로 및 소득 관련 증빙서류(고용 임금 확인서 등)를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청년 성장 한 뼘’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익산시가 청년들의 다양한 사회 활동을 응원한다.

시는 ‘2025년 청년 성장 한 뼘 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동아리를 4월 7일까지 모집한다.

청년 성장 한 뼘 지원사업은 청년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사회활동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문화·예술·자기계발·봉사·공익·사회활동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지원한다.

모집 대상은 익산시에 주소를 둔 18~39세 청년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이며, 심사를 통해 7개 팀을 선정해 동아리당 최대 20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익산시 또는 익산청년시청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참고해, 4월 7일까지 신청서와 활동계획서를 담당자 전자우편(cuj6008@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국립군산대, 이주호 부총리 주재 차담회 참석

전공자율선택제 현장 안착 위한 학교 관계자·학생과의 대화

국립군산대학교는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센터포인트 광화문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개최한 제72차 함께 차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차담회는 전공자율선택제 현장 안착을 위한 학교 관계자 및 학생과의 대화를 주제로 열렸다. 이날 초청된 국립군산대는 교육부에 전공자율선택제 우수 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차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전공자율선택제를 통해 기존 학과 중심에서 학생 중심으로 교육시스템을 변화시키기 위한 우수 사례들을 공유하고, 전공자율선택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국립군산대는 국립대 최초로 시행 중인 3무 기반 전과프리 제도 운영 사례에 대해 소개하였다.

이날 참석한 김효중 교육혁신처장은 “국립군산대의 전과프리 제도는 2024



학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전공선택 이후에도 불확실성을 가진 학생들이 원하는 전공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 전공선택의 안정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께 참석한 길정의 학생(국어국문학과 4학년)은 “국립군산대만의 전과프리 제도를 통해 컴퓨터정보공학 4학년임에도 전과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법당을 계속 이어 지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함도문화전자대전